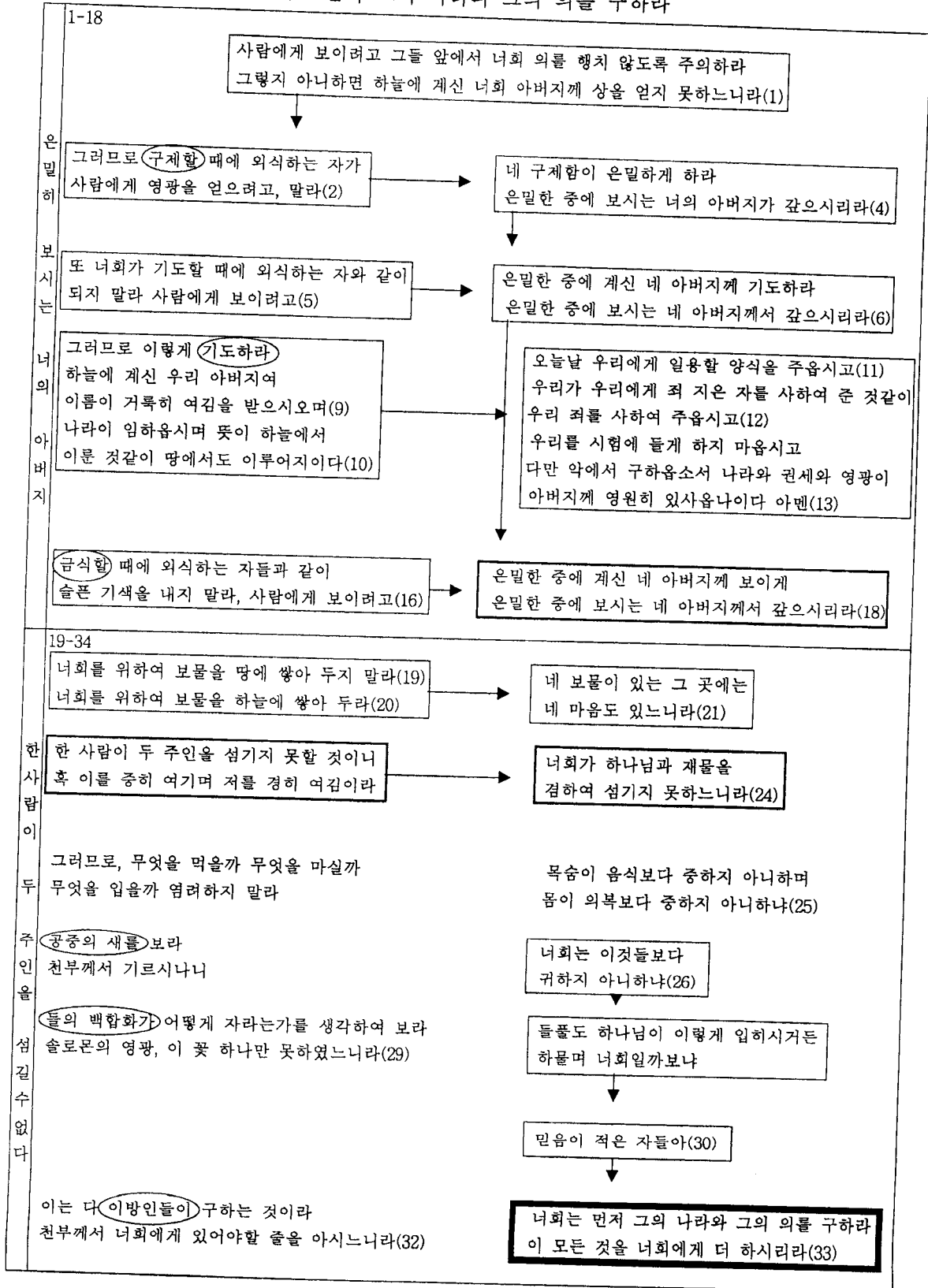


마태복음 6장 개관도표

주제 :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절 :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리라.

6장의 중심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무엇인가? 본 장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본 장의 내용은, “구제, 기도, 금식, 재물, 의식주문제” 등인데, 주님은 성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현(具顯)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산상설교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살고 있는가? 어찌하여 우리는 안다고 말하고, 믿노라고 하면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천하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1-18) 은밀히 보시는 너의 아버지

둘째 단원(19-3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첫째 단원(1-18) 은밀히 보시는 너의 아버지

선과 의의 다른 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1).

① 첫 절은 6장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와 같은 명제(命題)입니다. 이 한 절에 분명하면 6장 전체를 깨달은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전체가 뒤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확실히 붙잡고 넘어가야만 하겠습니다. 핵심은, “너희 의”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다른 역본(譯本)들에서는 “선한 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선한 행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의(義)와, 선(善)”을 같은 것으로 여기거나 혼동한다면 벌써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가, “너희 아버지”(1하)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란 하나님께 인정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 인정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은 될지언정 “의”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②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1상)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구제는 “선”은 될지언정 “의”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1하)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시 1:6)함을 받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의”라는 표현 속에 함의된 뜻입니다.

③ 주님은 5:20절에서도 선행이라 하시지 않고, “너희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2절의 “구제”는 사람들이 선행이라 말할 것입니다만, 5절의 “기도”와, 16절의 “금식”을 일반인들이 선행으로 간주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와 금식이 “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선행”(善行)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선행과, 의”에는 차

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란 “선행”은 할 수가 있어도, “의”는 행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는 “선인”(善人)은 될 수가 있어도 “의인”(義人)은 될 수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란 6장의 요절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선을 행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금식의 목적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②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어찌하여 주님께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아야만 했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잘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의 기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15:8-9) 하고 잘못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시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③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는 인간심리(心理)를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 사람 앞에 보이려합니까?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려는 심리는 “사람” 중심인 인본주의(人本主義) 사상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중심적(自己中心的)인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2상)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요 12:43).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

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2상) 합니다. 원리적인 말씀을 하시고는 상론(詳論)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언급하시는데, 여기에는 공통적인 틀이 있습니다. 첫째는, ㉠ “사람에게 보이려고”(2중, 5중, 16중), 즉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둘째는, ㉡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하라”(4중, 6중, 18중),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십니다. 셋째는, ㉢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4하, 6하, 18) 하십니다. “갚으신다”는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행한 “의”가 하나님 나라건설을 위해서 이바지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하나님 나라 건설에 수고하는)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10:42)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라면 넷째 틀은,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2하, 5하, 16하) 하십니다.

② 이점이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9상) 하신 기도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9중), 이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멈추고 묵상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할 모든 기도가 이 호칭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대 주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는 누구란 말인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 질 수가 있었는가? 나의 이전의 상태는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그런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등을 묵상한다면,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인가?

③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9하), 이것이 첫 기도입니다.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명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최우선의 목적도, “아버

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 12:28)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시조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겔 36:20, 롬 2:24)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최우선의 기도여야 합니다. 혹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나로 인하여 더럽힘을 받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생각하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욕과 같은 시련을 당한다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를 생각하며 자세를 흐트러뜨림이 없이 인내하는 자입니다. 만일 이러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주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자라 할 것입니다.

④ “(아버지의) 나라이 임하옵시며”, 여기서 말씀하는 “나라”는 “통치”(統治)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요, 만일 사탄의 지배 하에 있다면 그곳이 사탄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형장인 가정, 직장,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계 11:15)하실 그 날까지 계속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시라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 6:38-39)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아셨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26:39) 하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의탁하셨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를 메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제목, 즉 “이름과, 나라와, 뜻”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만 아버지의 뜻은 실현이 되고 이름은 영화롭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 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드릴 수 있다면 결길로 빠지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숨은 동기와 목적

① 이상 세 가지 기도가 구하고 지향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란 “구제, 기도, 금식” 뿐만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십니다. 이점을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 7-8) 하고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만 그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② 어찌하여 우리와 다른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답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즉 그렇게 안 할 여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권(強勸)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바울은 설명하기를,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5:13-15) 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현대교회가 산상설교를 안다고, 믿노라고 말하고, 유창하게 설교하면서도, 이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단 한가지 이유는 강단에서 복음이 살아졌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그 원인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에도 열심이 있습니다.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살아지게 되면 그 자리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가 차지하여 자기 잘되고 복 받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열심을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③ 본 단원에서 주님의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제에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금식에 힘써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일에 열심이 특신했습니다. 주님이 시정하시고 자 하는 바는 그 목적과 동기(動機)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도의 목적, 금식하는 이유, 열심 내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동기는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6:19-34절

둘째 단원(19-3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는 네 주인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24).

① 본 단원의 중심점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24)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주인”이라는 주제를 성경 전체적인 문맥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두 주체(主體)인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느냐? 사탄의 지배 하에 있느냐”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은 사탄은 결코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같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두 주인은 “하나님 중심이나? 자기 중심이나?”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②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향하여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만, 더욱 현대교회를 향하여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히 4:12)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혼(心魂) 골수(骨髓)를 찢어 찌개기까지 합니다. 과연 우리 중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노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왕상 18:21), 양단 간(兩端間)에 택일을 하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둘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 단원은 이 기조(基調)에 의하여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③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19상) 하십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20상) 하십니다. 여기서도 양단간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어찌하여 어떤 사람은 “땅에 쌓아 두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쌓아 두게” 되는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섬기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④ 어떤 분들은 “나는 땅에 쌓아둘 보물도 없습니다” 하고 말할는지 모릅니다. 여기 사활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21) 하신, “마음”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하심은 보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에는 보물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보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22:37-38). 하나님이 소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형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형제의 마음이 최고로 귀한 “보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는 네 보물만이 아니라, 네 주인도 있느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25). 25-34절까지에서 의식주문제를 다루십니다. 이 부분의 키워드는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열쇠는 “염려”지만, 핵심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30하) 하신 “믿음”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염려하게 되는가? “염려”라는 원어(原語)의 뜻은 “마음이 나누인다”는 뜻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天父)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십니다.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26)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28-30) 하십니다. 주님은 “새와 자녀, 들꽃과 자녀”를 대조시켜 하나님에게 있어서 “누가 더 귀”한 존재인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③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31) 하십니다. 주님의 대조(對照)는 “새와 자녀, 들꽃과 자녀”에서, “이방인들과, 너희(자녀)”의 대조로 귀착이 되고 있습니다.

④ 너희가 이방인(異邦人)들이란 말이나? 너희는 천부의 자녀들이 아니냐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세상 나라에 속했으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첫째는 국적(國籍)이 다릅니다. 둘째는 신분(身分)이 다릅니다. 셋째는 주인이 다릅니다. 넷째는 삶의 목적(目的)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해도 염려하는 문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염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33)는 의미입니다.

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에 중심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건설입니다. 그 나라가 메시아왕국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도 여기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城)과 곶(郭)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信)을 지키는
의(義)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사 26:1-3).

⑥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33하) 하십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듯이 마음이 나누어졌기(염려)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점이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을 구한 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11) 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할 점은 “일용할 양식, 죄를 사하여 주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심”(11-13)까지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⑦ 6장을 마치기 전에 생각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6장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 “아버지”가 뇌신다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십니다. 주님은 “너희 아버지”라 하시는가 하면, 심지어 “네 아버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족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땅만을 내려다보고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그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감시(監視)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 보살피신다는 자비의 눈빛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대표기도,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신앙(神前信仰)을 망각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묻고 있는 셈입니다. 본 장은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벌거벗기듯 드러내주고 있습니다.